

아파트에서 세월의 흔적을 읽다...

## 최중원 사진전



서울 곳곳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새 아파트에만 관심을 줄 뿐, 수십 년 전 지어져 지금껏 명맥을 이어 온 초창기 아파트들은 외면한다.

사진작가 최중원은 이제는 너무 낡고 허름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초창기 아파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서울 방이동 한미사진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우리 주변의 풍경들에 주목해 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실제 아파트들의 모습을 촬영한 '아파트' 연작을 선보인다. 작가의 카메라에 담긴 아파트들은 대부분 대단지가 아닌 독립형, 소규모 형태의 아파트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아파트들이 견뎌 온 세월만큼 저마다 품은 사연도 다양하다. 지금은 허름

하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국내 최초의 아파트로 관심을 받았던 충정아파트. 1930년대 일본인이 지은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에 의해 양민학살 장소로 사용되다 연합군에게 넘어가 군 전용 호텔로 개조됐던 파란만장한 역사를 안고 있다.

명동과 남대문 시장 주변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중앙난방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 주목을 받았던 회현시범아파트, 황학동 사거리에서 한눈에 띄었던 동대문아파트 등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전시 9월 2일까지

관람료 6천 원

문의 02-418-1315

### 펠릭스 곤살레스-토레스 아시아 첫 회고전

전시 9월 28일까지

관람료 일반 3천 원, 청소년 2천 원

문의 1577-7595, www.plateau.or.kr

쿠바 출신 작가 펠릭스 곤살레스-토레스(1957~1996)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 서울 태평로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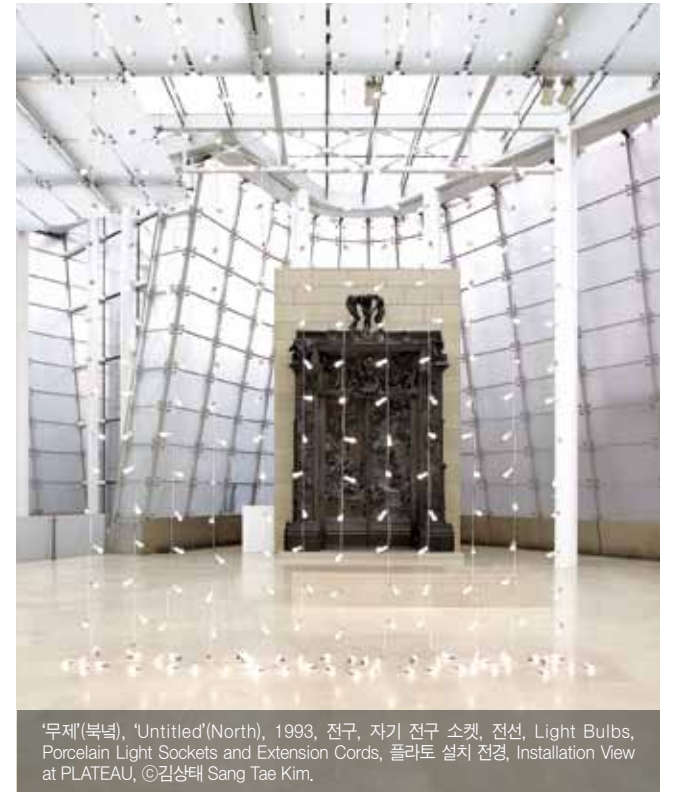
곤살레스-토레스는 쿠바에서 태어나 1979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 사진을 전공했으며, 1988년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연 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합병증으로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는 작품 활동을 했던 10여 년간 소재나 형식에서 극도로 단출한 작품을 남겼다. 하지만 작가 사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60여 회의 개인전과 700회가 넘는 그룹전이 열렸다.

그는 동성 애인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 자신도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흐르는 시간과 소진되는 재료로 죽음의 공포를 담았다. 그러면서 '영원히 다시 채워지는' 작품의 조건으로 재생과 영속을 기원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더블(Double)'은 작가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쌍의 오브제인 동시에 완벽한 사랑과 사회적 터부인 동성애, 작품의 감상과 훼손, 변형과 영속, 복제와 탄생 등을 담은 이중적 의미를 상징한다.

아시아 미술관으로는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개인 소장가들에게서 대여한 작가의 대표작 44점이 출품됐다.



### '모빌 창시자' 알렉산더 칼더 개인전

전시 8월 17일까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735-8449

천장이 높은 하얀 공간에 가느다란 철사와 거기에 매달린 작은 강철 조각들이 공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살랑살랑 흔들린다. 움직이는 조각 '모빌'의 창시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칼더(1898~1976)의 검은색 작품들이 전시장의 하얀 벽과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잡아끈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미국 칼더 재단과의 협력으로 알렉산더 칼더의 개인전 'NOIR(검은색)'을 열고 있다.

동시대 조각가들이 나무, 대리석, 청동 등 주로 목직인 소재로 작업할 때 칼더는 철사를 비틀고 구부려 무게감이 없는 입체적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칼더가 제작한 검은 조각 6점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에 맞춰 한국을 찾은 칼더의 외손자이자 칼더 재단 이사장인 알렉산더 스테링 칼더 로워(Alexander S. C. Rower)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힘이 무엇인가가 칼더가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주제"라며 "칼더라는 작가가 구현한 예술적 언어의 다양성을 서울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Alexander Calder(1898~1976), Black Beast, 1940, Sheet Metal, Bolts and Paint, 103x163x78 1/2 inches, 261.6x414x199.4cm, © Calder Foundation, New York / Art Resource, NY.



연출 최동훈  
출연 김윤석, 이정재, 김해수, 전지현  
개봉일 7월 25일, 15세 이상 관람가

## ‘도둑들’ 탄탄한 스토리에 초호화 캐스팅

환상의 호흡을 맞춰 온 도둑 4인조 뽀빠이(이정재), 예니콜(전지현), 씩뚱껌(김해수), 잠파노(김수현). 갓 출소한 금고털이 뽀빠이(김해수)와 함께 이들은 마카오로 건너가 전설적인 도둑 마카오 박(김윤석)과 카지노에 숨겨진 현대의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이들은 현지에서 잔뼈가 굵은 도둑 첸(런다화)의 도움을 받아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나서나 삼엄한 경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천신만고 끝에 10명의 ‘드림팀’은 기어이 다이아몬드가 숨겨진 금고 문을 여는 데 성공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손에 얻는다.

화면 돈도 화사하고 컷의 전개도 빠르지만 영화를 관통하는 정서는 촌스럽다. 007 시리즈와 1970~80년대 홍콩 영화를 떠올릴 만한 오프닝은 아마도 그 전조일 것이다.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이 마음을 도둑맞아 가슴앓이를 한다는 설정이 대표적이다. 사랑에 빠진 도둑은 마치 영웅인 양 목숨 따위는 별것 아닌 듯 초개같이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

마카오 박-뽀빠이의 삼각전선이나 씩뚱껌-잠파노의 티격태격 에피소드

에서는 옛 사랑 이야기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런다화, 김해수 커플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1970~80년대 에로물의 향취가 나 흥미롭다.

초반에 전지현의 깔렁깔렁한 모습과 오달수의 허세가 웃음을 전해주는 이 영화는 본체도에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다.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과정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영화는 지루하기 시작할 때쯤 엄청난 뒷심을 보여주며 막판을 향해 달려간다. 아마도 국내 영화 가운데 역대 최고의 와이어 액션이 될 만한 추격신이 그 뒷심의 중심에 있다. 홍콩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마카오 박이 건물 외벽에서 벌이는 와이어 액션은 명품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법하다.

최동훈 감독은 전작 ‘전우치’에서 얻은 학습효과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의 와이어 액션을 소화해 내지 못했을 것이다. ‘전우치’에서 보여준 액션이 느리고 우아하며 정교했다면 ‘도둑들’은 뭔가 대충대충 만든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붓질 몇 번으로 명화를 그렸던 옛 화인들처럼, 최 감독은 쓱쓱쓱 몇 번의 앵글만으로 대단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 01 조지 해리슨 : 물질세계에서의 삶

비틀스 멤버지만 존 레논이나 폴 매카트니에 비해 덜 알려진 조지 해리슨. 그의 삶이 세 시간 반 분량의 방대한 다큐멘터리에 담겼다.

감독은 영국과 미국의 팝 무대를 점령했고 한 세대의 ‘종교’로까지 추앙받으며 10여 년간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인파를 몰고 다닌 불세출의 밴드 비틀스를 성장기부터 전성기, 불협화음이 있었던 시기, 해체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정서적인 변화에 초점을 뒀다.

40~50년 전 옛날 얘기인데도 수많은 사진과 공연, 인터뷰 영상이 짧은 컷으로 빠르게 이어져 지루할 틈이 없다. 비틀스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한 편의 스토리로 구성한 솜씨에서는 거장의 힘이 느껴진다.

연출 마틴 스코세이지 출연 조지 해리슨  
개봉일 7월 19일, 12세 이상 관람가

### 03 명탐정 코난 : 11번째 스트라이커

어느 날 탐정 사무소에 의문의 남자로부터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오는데, 폭탄이 설치된 장소는 암호 메시지로 전달된다.

코난은 암호를 풀어 축구 경기장의 전광판 기둥에서 폭탄을 발견하고 수많은 관객의 목숨을 구한다. 범행 용의자는 몇 명으로 좁혀지지만, 쉽사리 확증을 잡지 못해 경찰은 애를 태운다.

‘명탐정 코난 : 11번째 스트라이커’는 축구장 폭탄 테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코난과 범인의 두뇌 게임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긴박감 넘치는 연출로 탐정추리물을 좋아하는 관객들을 꽤 만족시킬 만하게 만들어졌다. 역동적인 축구 경기와 전광판의 시계, 폭탄에 설치된 시계 초침이 숨 가쁘게 교차 편집된 장면들은 코난의 추리를 따라가는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연출 시즈노 고분 개봉일 7월 19일, 12세 이상 관람가

### NEW FILMS



1



2



3



4

### 02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평생을 거리의 여성들과 함께 살아온 신문사 칼럼니스트 엘 사비오(에밀리오 에체바리아). 한동안 여자를 만나지 않던 그는 아흔 살 생일날 아침, 처녀와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한다.

사비오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마담(제랄딘 채플린)으로부터 옛된 소녀(파올라 메디나)를 소개 받는다. 마침내 그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잠자는 소녀의 모습을 본 후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의 격랑에 휩싸인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상영 시간은 97분으로, 덴마크 출신의 노장 해닝 칼슨 감독이 메가폰을 들었다.

연출 해닝 칼슨 출연 에밀리오 에체바리아  
개봉일 7월 19일, 청소년 관람불가

### 04 하와이언 레시피

소원을 이뤄준다는 ‘달 무지개’를 보러 하와이 호노카아 마을에 여자친구(아오이 유우)와 함께 온 레오(오카다 마사키)는 여행 중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다.

학교를 휴학하고 다시 호노카아를 찾은 레오는 작은 영화관에 등지를 틀고 이 평화롭고 한가한 마을에 사는 중년, 노년의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친해진다.

영화는 인생의 황혼을 맞은 노년의 여성과 귀밀에 숨털도 채 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 꽃다운 청년이 상식을 뛰어넘는 교감을 한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이 영화 속에서 비이(바이쇼 지에코)가 손자뻘인 레오에게 품는 감정은 ‘하와이언 레시피’로 만든 특별한 음식들을 통해 귀엽고 예쁘게 드러난다.

연출 사나다 아쓰시 출연 오카다 마사키, 아오이 유우  
개봉일 7월 19일, 12세 이상 관람가

**우리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산성을 가다**

대한민국은 산성(山城)의 나라다. 허리가 잘린 한반도의 남쪽에만 1천200여 개의 산성이 남아 있다. 산성은 과거엔 치열한 전장(戰場)이었고, 지금은 역사의 현장이다.

산성과 평지성을 고루 쌓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산성은 중국, 일본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산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시큰둥하기만 하다. 다양한 역사서를 펴냈던 이덕일, 김병기 씨는 이러한 시각을 바꿔 보자고 제안한다. 산성은 운동하기 좋고, 전망도 뛰어나며, 사실(史實)도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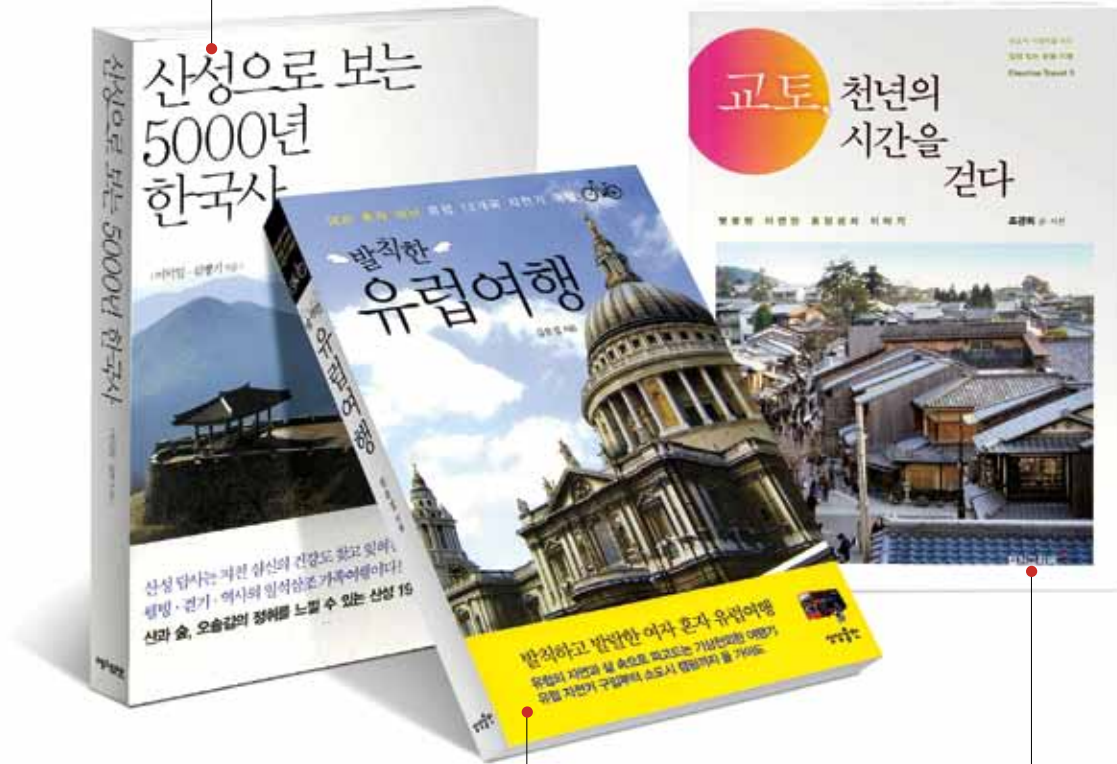
이덕일 · 김병기 지음/에스위켄/496쪽/1만6천 원

**마약만큼 무서운 밀 중독**

뱃살이 찢 줄 알면서도 빵이나 과자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책은 밀의 중독성이 마약이나 담배만큼 지독하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심장병 예방학 의사인 저자는 실제로 부엌에 베이글이나 머핀을 두지 않는 철저한 '밀 안티' 운동가. 밀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현대인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선 당장 밀 음식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데이비스 지음, 인윤희 옮김/에코리브르/372쪽/1만8천 원



**노르웨이에서 스페인까지, 여자 혼자만의 자전거 여행**

유럽은 여러 나라로 구성돼 있고, 풍경도 한결같지 않다. 조금 색다르고 특별하게 대륙을 돌아보고 싶었던 저자는 '자전거'를 선택했다.

유럽은 국경이 엄격히 나뉘어 있지 않고, 안전한데다 좁은 골목이 많아서 자전거 여행을 하기에 제격인 장소다.

그녀는 홀로 영국에서 출발해 아일랜드를 거쳐 노르웨이 풀름부터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까지 108일 동안 5천200km를 자전거로 질주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른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여행기 외에도 자전거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담겨 있다.

김윤정 지음/상상출판/304쪽/1만5천500원

**중문학자가 바라본 일본의 정수, 교토**

일본에서 교토가 차지하는 문화적 위상은 독보적이다. 헤이안(平安) 시대가 시작된 794년 천도가 단행된 이래로 근대화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계기가 된 1868년의 메이지유신까지 일본의 수도는 교토였다. 그래서 시내에 유적과 문화재가 즐비하며, 거리마다 기품과 전통이 배어 있다.

대학에서 중문학을 가르치는 조관희 교수가 1년 동안 교토에 머물렀던 경험을 토대로 이 도시의 웅숭깊은 내면을 들여다봤다. 그는 교토가 탄생한 배경과 역사를 통해 공간을 재해석했다.

교토에서 흘러온 시간의 편린들이 합쳐져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기행서가 완성됐다.

조관희 지음/컬처그라피/368쪽/1만4천 원



**안철수가 꿈꾸는 세상**

대권 잠룡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펴낸 대담집. 안 원장이 걸어온 길은 물론 정의, 복지, 재벌, 비정규직, 언론 파업 등 정치·사회적 현안과 남북 문제 등을 두루 조망했다.

청소년 독자에게는 "재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며 인생 선배로서 전하는 따스한 격려도 담았다.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어떤 공약을 펼칠지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대담은 일간지 기자 출신인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맡았다.

안철수 지음, 제정임 엮음/김영사/276쪽/1만3천 원

**몸을 '쇼핑'하는 시대**

제대혈부터 성형까지 신체 일부를 '쇼핑'하는 시대. 세계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인체 매매 실태를 낱알이 고발한다. 장기 매매, 난자 거래같이 '괴담'으로 들릴 만큼 적나라한 암시장 뒷얘기가 공개된다.

방대한 생명공학 이론을 토대로 즐기세포 연구, 게놈 특허 경쟁 등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뒤흔드는 '프랑켄슈타인'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나 디켄슨 지음, 이근애 옮김/소담출판사/312쪽/1만5천 원



**참신한 라인업의 '슈퍼소닉 페스티벌'**

일본의 서머소닉 페스티벌과 연계한 '슈퍼소닉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지만, 참신한 라인업을 내세워 주목받는다. 특히 올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는 뮤지션 고티에(Gotye)의 첫 방한이 눈에 띈다. 또 지난해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오른 밴드 '포스터 더 피플(Foster the People)'과 영국의 떠오르는 록 밴드 '더 백신스(The Vaccines)'의 참여도 음악 팬들의 눈길을 끌 만하다. 신스 팝(Synthpop)의 가장 뉴 오더(New Order)와 1990년대를 풍미한 스매싱 펌킨스(Smashing Pumpkins)도 출연한다.

(The Vaccines)'의 참여도 음악 팬들의 눈길을 끌 만하다. 신스 팝(Synthpop)의 가장 뉴 오더(New Order)와 1990년대를 풍미한 스매싱 펌킨스(Smashing Pumpkins)도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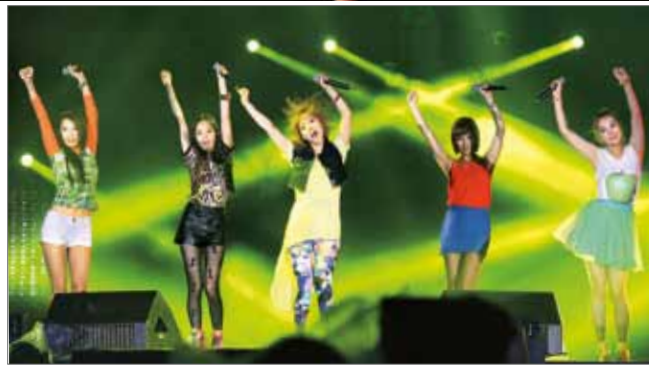
**일 정** 8월 14~15일, 서울 올림픽공원(체조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잔디마당)  
**티켓** 1일권 13만 원, 2일권 24만 원, 슈퍼 스테이지(체조경기장) 11만 원, 소닉 스테이지(핸드볼경기장) 7만7천 원  
**주 최** PMC네트웍스, PMC프러덕션, 태원엔터테인먼트, VU엔터테인먼트 등  
**문의** 02-6002-7577



**최고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UMF코리아'**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은 전 세계 최고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로 꼽힌다. 행사의 본고장인 미국 마이애미를 비롯해 해마다 5개 안팎의 나라에서 같은 이름을 걸고 개최되는 이 행사가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출연진 면면도 화려하다. 일렉트로닉 트랜스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티에스토(Tiesto)를 비롯해 테코노 음악에서 손꼽히는 칼 콕스(Carl Cox), 지난해 그래미상 3개 부문을 수상한 스크릴렉스(Skrillex) 등 유명 일렉트로닉 뮤지션이 대거 참여한다.

**일 정** 8월 3~4일,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티켓** 1일권 11만~13만2천 원, 2일권 18만 원  
**주 최** 유씨코리아  
**문의** 1544-1555



**JYP 가수들 합동 공연 'JYP 네이션'**

박진영, 원더걸스, 2PM 등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8월 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2 JYP 네이션(Nation)'이란 타이틀로 합동 공연을 펼친다. JYP 가수들이 국내에서 합동 공연을 하는 것은 2010년 12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번 공연에는 박진영을 비롯해 원더걸스, 2PM, 2AM, 미스 에이(Miss A), 주(Joo), 산이(San E), JJ 프로젝트 등이 참여한다.

**일 정** 8월 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티켓** R석(스탠딩, 지정석) 9만9천 원, S석(스탠딩, 지정석) 7만7천 원, A석 5만5천 원  
**주 최** CJ E&M, JYP  
**문의** 1544-1555



**미국 재즈 셋벨 에스페란자 스팔딩, 첫 내한**

미국 재즈계의 떠오르는 스타 에스페란자 스팔딩이 9월 7일 서울 광장동 악스코리아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보컬리스트이자 재즈 베이시스트인 스팔딩은 지난해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저스틴 비버 등 유력한 후보들을 제치고 신인상을 거머쥐어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스팔딩은 최근 선보인 정규 앨범 '라디오 뮤직 소사이어티(Radio Music Society)' 발매를 기념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에스페란자 스팔딩은 13세에 콘트라베이스에 매료돼 정규 교육 과정을 중단하고 음악 수업에 매진해 19세에 버클리 음악원을 졸업했다. 2008년 정규 데뷔 앨범 '에스페란자(Esperanza)'로 미국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발표한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Chamber Music Society)'로 그래미상을 받는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일 정** 9월 7일, 서울 광장동 악스코리아  
**티켓** 지정석 11만 원, 스탠딩석 9만9천 원  
**주 최** 프라이빗커브  
**문의** 02-563-0595



**전통 있는 음악 축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국내 페스티벌 중 가장 전통 있는 음악 축제다. 2006년 폭우와 진흙탕 속에서 록에 열광한 추억이 있는 팬들에게 펜타포트는 그 어느 축제보다 각별한 이름이다. 올해 행사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알찬 라인업을 자랑한다. 특히 올해 펜타포트 참가를 위해 첫 내한하는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Manic Street Preachers)'는 국내에 많은 마니아 팬을 보유해 흥행이 기대된다. 또 국내 출연진으로 크래쉬, 바세린 등 육중한 록 사운드를 들려주는 밴드들과 관록의 가수 이승열을 비롯해 뜨거움감자, 십센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요즘 음악 팬들 사이에서 화제인 KBS의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TOP밴드 시즌2'와 함께 하는 무대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주목받고 있는 밴드인 장미여관과 데이브레이크, 각스 등이 출연한다.

**일 정** 8월 10~12일, 인천 심곡동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티켓** 1일권 7만7천~8만8천 원, 2일권 13만2천~14만3천 원, 3일권 16만5천 원  
**주 최** 인천광역시, OBS  
**문의** 1544-1555



**이승환, '이승환 회고전' 앙코르 공연**

가수 이승환이 지난 6월 개최한 '이승환 회고전'의 앙코르 무대를 마련한다. 이승환은 8월 18~19일 서울 청파동 숙명아트센터 씨어터S에서 '한번 더!! 회고전'이란 타이틀로 재공연한다. 소속사인 드림팩토리클럽은 "이승환 씨가 '이승환 회고전'을 열 당시 후두염 악화로 하루 공연을 취소하고 환불했다"며 "그날 공연을 보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마련한 무대인 만큼 당시 예매자들이 먼저 예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연은 이승환의 지난 23년을 총망라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팬들이 좋아하는 1집부터 10집까지의 음악을 들려주고 영상 등을 통해 지난 시간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또 기존 이승환의 공연에서처럼 무한 앙코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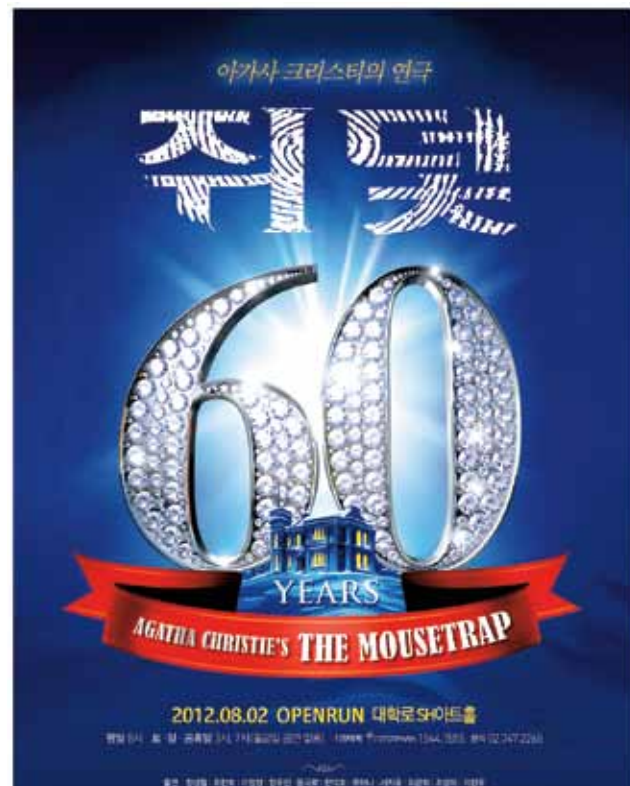
**일 정** 8월 18~19일, 서울 청파동 숙명아트센터 씨어터S  
**티켓** 18일 9만9천 원, 19일 11만 원  
**주 최** 드림팩토리클럽  
**문의** 1544-1555



**무대에서 만나는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가 무대에 오른다. 2008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이 뮤지컬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런던과 파리를 넘나들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 남자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염세적인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변호사 시드니 카튼 역은 류정환과 윤형렬이,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양심에 따라 신분을 버린 찰스 다네이 역은 카이와 전동석이 맡았다. 두 남자의 애정을 받는 사랑스러운 여인 루시 마네트 역은 최현주, 임혜영이 연기하고, 혁명을 주도하는 마담 드파르쥬 역은 이정화와 신영숙이 캐스팅됐다.

일정 8월 28일~10월 7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8시, 토 오후 3/7시, 일·공휴일 오후 2/4시,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  
티켓 5만~12만 원 / 문의 1577-3363



**60주년 맞아 애거서 크리스티 '쥐덫'**

초연 60주년을 맞은 애거서 크리스티의 연극 '쥐덫'이 서울 대학로 무대에 오른다. 프리뷰 기간인 8월 2일부터 한 달 동안은 티켓 가격을 영화보다 싼 6천 원으로 정하고 극장 내부는 애거서 크리스티 홍보관으로 꾸민다. '쥐덫'은 애거서 크리스티가 단편 '세 마리 눈먼 생쥐'를 직접 각색한 작품. 1952년 런던 앰배서더 극장에서 초연해 공연 역사상 최장기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신혼인 물리와 가일즈는 친척에게 물려받은 집으로 여인숙 몽크스웰을 개업한다. 런던에서 중년 여성이 살해되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가운데 젊은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을 비롯한 투숙객들이 차례차례 짐을 풀고, 폭설로 고립된 몽크스웰에 형사 트로터가 찾아와 투숙객 중 런던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있다고 말한다.

일정 8월 2일~오프런 화~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7시, 서울 대학로 SH아트홀  
티켓 3만5천~5만 원  
문의 1544-1555

**정명훈 지휘의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지휘자 정명훈이 지휘하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가 연주회를 연다. 한국과 중국, 일본 출신의 연주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APO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다. 정명훈은 예술감독으로 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매년 여름에 모여 연주하는 정 감독과 APO는 올해의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4차례 콘서트를 갖는다. 한국에서는 두 차례 연주하는데 이 중 첫날은 '유니세프(UNICEF)와 함께하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다. 그는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에서 협연한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에 이번 자선 연주회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지만, 북측은 현재 상황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연주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이다. 소프라노 김영미, 메조소프라노 양승미, 테너 강요섭, 베이스 박종민, 교회연합합창단이 출연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일반인도 합창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북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할 계획이다.

일정 8월 4일,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  
티켓 1만~5만 원  
문의 02-745-0310



**화려한 캐스팅의 아외 오페라 '라 보엠'**

지휘자 정명훈과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빛어내는 아외 오페라 '라 보엠'은 어떤 모습일까. 오페라단 ADL은 푸치니의 '라 보엠'을 7천 석이 훌쩍 넘는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연다. 이번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코 출연진이다. 1992년 '라 보엠'의 여주인공 미미 역으로 주목을 받은 루마니아 태생의 소프라노 게오르규가 오페라 팬의 이목을 끈다. 그와 함께 폭넓은 연기력을 자랑하는 오페라의 팔색조 피오렌차 제돌린스도 같은 역으로 캐스팅됐다. 미미의 연인 로돌포 역에는 '작은 파바로티'라고 불리는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와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과 국제 성악 콩쿠르를 가진 마르첼로 조르다니가 번갈아 출연한다. 화려한 캐스팅과 함께 공연장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대중 음악 콘서트는 자주 열렸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포함한 클래식 오페라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바닥 소리를 흡수하는 잔디에서 대리석으로 교체한 뒤 갖는 첫 대형 클래식 무대라 관심을 끈다. 연주는 서울시향이 맡는다. 수원시립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비가 올 경우 공연은 다음날로 순연한다.



일정 8월 28일~9월 2일,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  
티켓 3만~57만 원  
문의 1577-3363